

제시문 <가>, <나>, <다>는 죽음에 대해 서로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 제시문은 먼저 서술대상의 죽음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나>에서 관찰된 고릴라들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릴라 무리의 젊은 수컷은 죽은 마체사를 무리 앞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과시적으로 폭행한다. 나머지 고릴라들은 죽은 고릴라를 건드리고 살펴본다. 이들은 죽은이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한다. 그러한 고릴라들의 행위는 죽음이라는 불가해의 상황 앞에서 보이는 집단적 의례이다. 그들에게 생명 반응의 중지라는 죽음의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가>와 <다>는 공통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는 '사고'라는 이성적 능력을 통해 죽음을 인지하는 특수한 존재로 서술한다.

그러나 양자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가>의 인간은 죽음을 삶의 과정에 포함된 현상으로 인식한다. <가>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라는 삶의 본능을 거스르는 특수한 존재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간은 죽음이 삶의 연장이며,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수한 삶의 양식을 실천한다. 이는 '매장'이라는 의례적 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인간에게 죽음은 혐오나 기피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죽은이들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자한다. 오히려 인간들은 죽은 자들을 화려한 유물과 함께 장례를 지내고, 힘들여 건설한 무덤에 매장한다. 이는 지인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담담히 마주하며, 죽은이들을 자신들 곁에 영구히 보존하려는 것이다.

반면, <다>의 인간은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부터 단절된 현상으로 인식한다. <다>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종속된 존재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삶으로 부터 유리되는 과정이다. 그 이후 인간 존재는 원자로 분해되어 사라질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인간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기피하기까지 한다. 죽은 자는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고, 추악해진다. 이런 모습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기시킨다. 인간은 죽은자들의 두려운 모습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매장한다. 이들에게 매장은 예식의 아니다. 이들에게 매장이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기피의 대상을 산자들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치워버리는 것이다. 이는 죽음을 마주한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오직 살아있음에 집착함으로써 죽음을 의식적으로 기피하려는 것이다.

(1200자)